

요한복음 서막에 나타난 로고스의 선재와 성육

서형석*

1. 들어가는 말

요한복음 1:1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였다.”고 언급한다. 로고스의 선재를 설명하는 요한복음 1:1은 그 자체 안에 갈등을 함유한다. 로고스는 선재하였다. 그러나 선재 방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방식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있는 방식으로 갈라진다. 이 두 가지 선재 방식 중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방식에서는 두 존재가 개별성을 소유한다. 그러나 로고스가 하나님인 방식으로 선재하는 것은 동일성이라 할 수 있다. 왜 요한복음은 첫 절부터 선재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갈등의 내용들이 반영하는 요한 공동체 내부의 갈등들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요한복음 서막은 예수의 성육에서도 각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요한복음 1:5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는 언급이 등장한다. 이것은 서막에 등장하는 말씀이 육신이 된 로고스(1:14)로서의 예수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다. 이 언급에서 요한의 예수는 빛과 동일시된다. 빛은 어두움을 향해 비친다. 그러나 어두움은 깨닫지 못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1:14)는 언급은 그동안 중요한 요한 신학의 연구 주제인 성육신을 의미한다. 이 성육신 본문과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 교수, 신약학

는 다른 의미의 요한복음 1:5의 본문은 빛과 어두움의 이분법을 극복하려고 하는 요한의 예수의 역할을 드러낸다.

이 두 언급은 서로 다른 예수에 대한 이해를 부각시킨다. 먼저 빛이 어두움에 비친다고 할 때 비치는 역할 중심의 언급이다. 빛이 어두움이 될 수는 없다. 빛은 어두움에 비칠 뿐이다. 그러나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언급은 로고스가 육신이 되는 사건이다. 로고스는 육신과 하나가 된다. 예수의 선재와 성육에 대한 이러한 각기 다른 이해는 왜 요한복음 서막에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른 예수 이해를 요한 공동체는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본 소론의 목적이다.

2. 로고스의 선재 방식의 갈등

요한복음 서막에 반영된 갈등을 연구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외적 갈등으로 해석하는 방향과 그 다음 내적 갈등으로 해석하는 방향이 있다. 카이저(R. Kysar)는 요한복음의 선재 사상은 신약의 다른 문서에 비해 지배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막의 로고스 사상을 공동체의 정황과 연결 지으려고 했다. 그는 서막을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와의 대화를 통해 읽도록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가 토라에 나타난 계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¹⁾ 카이저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공동체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이러한 특징은 요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과 지역 유대교 회당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들을 반영한다.²⁾

1) R. Kysar, "Christology and Controversy, The Contributions of the Prologue of the Gospel of John to New Testament Christology and their Historical Setting," *CTM* 5 (1978), 359.

카이저는 서막의 기독교론을 공격과 방어의 기독교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사이에 대화가 시도된다고 밝힌다. 그러나 카이저가 놓친 것은 요한복음 서막의 로고스의 선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개별성과 하나님인 동일성의 갈등을 읽어내지 못한 점이다. 요한복음 1:1은 이미 로고스의 선재를 기정사실로 여긴다. 그러나 그 선재 방식이 하나님과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선재이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의 선재이냐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의 갈등은 외적 갈등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내적 갈등으로 읽어야 더 합리적이다. 카이저는 요한 공동체와 유대교 회당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외적 갈등에 집중하여 서막을 연구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는 달리 로고스의 선재 자체 안에 있는 모순, 즉 하나님인 로고스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로고스 사이에 존재하는 서막의 로고스 이해의 내적 갈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³⁾

요한복음 서막을 연구하면서 내적 갈등의 분위기를 감지한 학자는 톰슨(M. M. Thompson)이다. 그는 요한 공동체와 유대교 회당 공동체 간의 갈등이라는 외적 갈등의 범주와 다른 범주의 갈등을 제시한다.

요약하면, 서막에 드러난 갈등은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와의 갈등이다. 갈등은 예수의 정체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서막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조한다.⁴⁾

톰슨이 다른 학자들과 다른 점은 그가 서막을 그래도 내적 갈등으로 읽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조금 더 요한 공동체가 처한

2) Ibid., 363.

3) 카이저가 서막을 외적 갈등으로 해석한 것이 잘못이라는 견해가 아니라, 요한복음 서막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1:1과 1:5, 1:14는 내적 갈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

4) M. M. Thompson, *The Incarnate Word Perspective on Jesus in the Fourth Gospel*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88), 50-51.

정황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는 내적 갈등의 범주를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으로 제한한다. 톰슨의 논리에 따르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요한 공동체의 유입과 그에 따른 유대교 회당 출신인 요한 공동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낸다. 톰슨은 마틴(J. L. Martyn)의 요한 공동체 구성 논의에 철저하게 기댄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⁵⁾

그러나 카이저나 톰슨은 요한복음 서막의 일반적인 갈등의 정황을 드러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좀 더 우리의 논의에 근접한 갈등을 다룬 연구들도 있다.

요한복음 1:1을 연구하는 경향은 로고스와 하나님의 동일성이라는 관점과 로고스는 하나님과는 차이가 있는 존재라는 개별성이라는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로고스와 하나님의 동일성이라는 시각으로 요한복음 1:1을 읽는 학자들의 한계는 교리적인 전제가 강하다는 점이다. 바레트(C. K. Barrett)는 요한복음 1:1을 해석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Θεός)은 신적인 인간에 대한 호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의미에서 그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전체가 이 구절(1절)의 빛에서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예수의 말과 행적들은 곧 하나님의 말과 행동들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⁶⁾

그는 로고스와 하나님의 동일성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5) 마틴(J. L. Martyn)은 공개 고백을 수행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비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며 아직도 유대교 회장에 있는 그리스도교적 유대인 간의 갈등을 말하고 있다. 물론 마틴의 견해는 서막에 대한 외적 갈등에 해당하는 주장이지만, 요한 공동체의 초기 구성원들이 유대인들 일색으로 구상되었다는 전제에 톰슨이 기초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한계이다. J. L. Martyn, *History and Theology in the Fourth Gospel* (New York: Paulist Press, 1979) 참조.

6) C. K. Barret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An Introduction with Commentary and Notes on the Greek Text* (London: SPCK, 1978), 115-116.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강한 교리적인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다른 의미를 읽어 내지 못하게 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요 14:28)는 언급도 신성 모독적 발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요한의 예수가 직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셴케는 바레트와 같은 동일성을 주장하는 학자이나 개별성의 표현을 인정하여 그 표현들로 인해 동일성을 주장해도 유일신 신앙의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나눌 수 없는 것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로고스와 하나님은 하나이며, 더구나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진정 로고스라고 불리며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않는다.”고 하며 로고스가 하나님이어도 유일신 신앙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한다.⁷⁾ 그는 요한복음 1:1을 해석하면서 독자가 이 수수께끼 같은 표현을 읽으면서 해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독자들에게 그가 제시한 요한복음의 구절들은 6:46, 8:16, 26절, 55절, 10:30과 38절, 14:7, 9절, 11절, 17:5, 21절, 24절, 20:28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구절들은 그의 판단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종속성을 부각시키는 본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46에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는 언급에서 아들은 보냄 받은 자이고 아버지는 보낸 자가 된다. 이것은 종속성의 증거로 사용가능하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정한 채, 아들 예수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언급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유일신 신앙은 위협받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일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로고스와 하나님의 개별성을 주장하는 학자는 위더링톤(B. Witherington III)이다. 그는 요한복음 1:1을 연구하면서 “이 전체 복음서는 바로 첫 절의 빛에서 읽혀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의

7) L. Schenke, *Johanneskommentar* (Duesseldorf: Patmos, 1998), 25.

행동들과 말씀들이 신적 존재의 행동들과 말씀들이기 때문인데, 신적인 존재는 피조된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앞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⁸⁾고 하였다.

위더링톤의 주장은 로고스와 하나님의 동일성을 강조했던 바레트의 견해와 비슷하게 교리적인 전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1을 개별성으로 해석한다. 그는 로고스의 선재를 로고스와 하나님의 개별성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기초로 요한복음 전체를 해석한다. 요한복음 1:1이 요한복음 전체를 해석하는 중심 구절이라는 위더링톤의 견해에는 동의하나, 동일성과 개별성 그 어느 하나의 견해로 요한복음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에 이미 등장하는 동일성과 개별성의 갈등과 서막을 제외한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 등장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동일성과 개별성에 대한 해석으로는 부적절하다.

몰로니(F. J. Moloney)는 위더링톤과는 다른 근거를 들어 로고스와 하나님의 개별성을 주장한다.

친밀한 성호성은 곧 로고스가 하나님이었다는 표현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독자는 헬라이어 문장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두 존재가 너무 밀접하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동사 앞과 주어 뒤에 있는 미완료 시제의 보충으로 인해 저자는 독자에게 ‘하나님이었던 분이 말씀이기도 하였다.’고 말하였다. 미완료 동사를 세 번 사용한 것은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저자는 이 문장을 주의 깊게 구성하여 독자에게 말씀이 곧 하나님과 동일한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달한다.⁹⁾

몰로니는 미완료 시제를 개별성의 근거로 사용한다. 그는 곧 “로고

8) B. Witherington, III, *John's Wisdom, A Commentary on the Fourth Gosp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54.

9) F. J. Moloney, *Belief in the Word. Reading John 1-4* (Mineapolis: Fortress Press, 1993), 28.

스는 (과거에) 하나님이었다.”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미완료 시제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이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보장하여 그 본문을 읽어본다면, “로고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었다.”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그가 개별성의 근거로 사용한 내용이 도리어 동일성을 검증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헨헨(E. Haenchen)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할 때 ‘테오스’(Θεός) 앞에 정관사가 쓰였으나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정관사가 빠진 ‘테오스’(Θεός)가 쓰인 것에 집중한다. 그래서 그는 로고스가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로고스는 신적이라는 주장을 한다.¹⁰⁾

그러나 그는 요한복음 첫 절에서 어떠한 갈등도 감지하지 못했다. 그의 설명은 서막을 제외한 요한복음에서 ‘테오스’(Θεός)가 신적인 것의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유지되기 힘들다. 만약 요한이 신적인 것의 의미로 로고스의 위치를 설명하려고 했다면 ‘테이오스’(Θεῖος)라는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헨헨과 같이 로고스와 하나님의 개별성을 주장하지만, 헨헨과는 다른 근거로 주장을 펼치는 밀러(E. L. Miller)는 ‘테오스’(Θεός)를 신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원학적으로나, 문학 스타일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지지될 수 없는 해석으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테오스’(Θεός)에 관사가 없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형용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거부한다. 그는 관사 없는 ‘테오스’(Θεός)는 로고스와 하나님의 완벽한 동일시를 피하게 하며,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 경향이라고 주장한다.¹¹⁾ 그러나 관사가 없는 ‘테오스’(Θεός)만 가지고도 충분히 로고스를 하나님과 동일

10) E. Haenchen, *John I. A Commentary on the Gospel Chapters 1-6*, R. W. Funk, tr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110.

11) M. D. Miller, “The Logos was God,” *Evangelical Quarterly* 49 (1977), 68.

하게 여길 수 있었던 헬라적 크리스천들을 그는 고려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

밀러는 ‘아르케’(αρχη, 요 1:1) 주제를 창세기의 옷을 입은 구속사의 근거로 독자들에게 이해된다고 생각한다.¹²⁾ 밀러가 서막을 연구하는 관점은 유대교의 구약 원리¹³⁾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밀러와는 달리 데이비스(M. Davies)는 요한복음에서 ‘파라’(παρα)라는 전치사와 함께 ‘테오스’(θεος)라는 명사가 쓰일 때, 일관되게 정관사를 생략하고 있지 않다(1:6 정관사 생략, 5:44 정관사 포함, 6:46 정관사 포함, 8:40 정관사 포함, 9:16 정관사 생략).¹⁴⁾ 데이비스의 주장에 의지한다면, 요한은 서막에서 그 당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서술 경향을 일관되게 지켜 나가지 않은 것이 된다. 도리어 밀러의 논의를 더욱 신선한 주장으로 구성하려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상을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는 요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고려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1을 해석하면서, 로고스와 하나님의 개별성과 동일성 모두를 고려하는 해석 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포힐(J. B. Polhill)은 1:1을 해석하면서 현상 진단 수준의 언급을 한다.

말씀은 하나님이나(동일성) 아직, 그와 함께(개별성)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일치, 아직 분리로 요한복음 전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긴장이다. 이것은 교회 공의회회의 삼위일체적 진술들을 통해서도 나중까지 지속되어 온 동일한 역설이다.¹⁵⁾

그러나 그의 주장은 현상 진단 수준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진단 수준

12) M. D. Miller, “‘In the Beginning’: A Christological Transparency,” *NTS* 45 (1999), 592.

13) 밀러의 유대교의 구약원리는 유일신 신앙이라고 논자는 판단한다.

14) M. Davies, *Rhetoric and Reference in the Fourth Gospel*, JSNTSS 69 (Sheffield: JSOT Press, 1992), 119.

15) J. B. Polhill, “John 1-4: The Revelation of True Life,” *RE* 85 (1988), 446.

에 머물러 있으면 본문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없다. 포hil과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해 해석을 시도한 학자는 카이저이다.

그렇다면 이 선재하는 창조적 로고스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서막은 이 점에 대해 조금만 보여줄 뿐이다. 마치 서문의 저자는 서문의 첫 구절에 쓴 언어로 자신의 독자들에게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헬라어 원문은 다음과 같이 읽힌다.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전치사 함께는 관계를 시사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시된다. 그 문장의 처음 절에서 ‘하나님’ 앞에 쓰였던 정관사가 두 번째 절에서는 빠져 있다. 이런 미묘한 문법적인 차이에 착안한 사람들은 로고스와 하나님의 동일성은 철저한 것이 아니었다고 추측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로고스는 신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는 그러한 해석은 정관사가 빠진 것을 너무 의지적으로 확대시킨 것이라고 본다.¹⁶⁾

카이저는 요한복음 1:1에서 로고스와 하나님의 개별성과 동일성을 동시에 발견한다. 그는 “하나님과 로고스 사이에는 개별성과 동일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개별성과 동일성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선언 수준의 언급으로 그친다. 논리적인 모순을 그대로 노출한 채 논의를 끝낸 것을 자신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어떻게 개별성이 동일성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카이저는 로고스는 하나님의 드러난 외적 측면이며, 하나님이 로고스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의 중요성이 하나님의 나타난 존재 속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로고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일 뿐이다. 그는 지금 로고스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동일성과 개별성의 갈등을 개별성으로 해소하려는 해석을 시도한다.

16) R. Kysar, *John the maverick gospel* (Atlanta: John Knox Press, 1976), 27.

케일(G. Keil)은 로고스와 하나님의 개별성과 동일성을 동시에 파악한다. “그러므로 우선 의도적인 분리가 특징이다. 의도된 것(로고스)이 의도하는 것(하나님)에 의해 의도되었다. 그러나 로고스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과 다른 것이 아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로고스도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세히 강조하면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한다.¹⁷⁾ 그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c)는 본문에서 일치를 읽어냈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1:2)에서는 분리를 읽어냈다. 그러나 그가 서막에 대하여 정교한 독서를 하였다면, 1절 자체에서 본인이 파악한 분리와 일치, 본 논의에서는 개별성과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로고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용적으로는 일치하나 근원적으로는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케일의 주장은 요한복음 1:1에서 분리와 일치를 읽어내지 못하여 빚어진 결과이다. 그는 요한복음 1:1에서는 내용적인 일치를, 1:2에서는 근원적인 분리를 파악한다. 그러나 이미 요한복음 1:1 자체에 개별성과 동일성 모두가 존재한다. 요한복음 서막은 근원적인 선재 방식에서도 이미 같 등이 존재한다.

로고스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개별성과 동일성의 문제를 현재의 갈등으로 파악한 후, 목격자의 등장이 이 문제 해결의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학자는 스미스(M. Smith)이다.

참으로 그는 내러티브의 시작 부분(1:1, 18)과 종결 부분(20:28)에서처럼 하나님(Θεός)으로 불릴 수 있다. 예수의 초월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적인 근원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모습은 예수와 함께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의 목격자들(1:14, 2:11, 19:35, 21:24)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요한의 예수는 현세적인

17) G. Keil, *Das Johannesevangelium. Ein philosophischer und theologischer Kommentar*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7), 22.

면을 가지고 있다(요1 1:103을 보라).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서가 다른 책들보다 예수의 인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¹⁸⁾

스미스는 “로고스의 인간적인 근원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의 내용은 만약 로고스의 인간적인 근원이 무시되어도 좋을 사항이었다면 목격자들의 등장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데 주안점이 있다. 그러나 그는 목격자들의 등장이 예수의 인성 속에서 신성을 감지하도록 하려는 의도였음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그에게 요한복음 곳곳에 있는 개별성 표현은 목격자들 때문에 남겨 둔 흔적들이 된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은 요한 공동체의 내부 갈등이라는 전망으로 이해하고 요한이 서막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퀴글러(J. Kuegler)는 스미스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간 해석을 시도한다. 그는 “고대 이집트 문화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모형이거나 연속으로 이해된다.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적인 차별성이 확정되기도 하고, 그 둘 사이에 질적인 일치가 강조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¹⁹⁾ 그러나 이집트 문화를 사용하여 요한 공동체의 역학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방법론상 무리가 따른다. 퀴글러가 요한 공동체와 같은 시기의 이집트 문화를 예로 드는 정도의 성실함을 보였을 때에도 이러한 접근은 방법론상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이집트 문화를 모방이라는 차원이라기보다 창조적인 변용의 차원으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웨첸(H. C. Waetjen)은 로고스는 정관사가 누락된 테오스(Θεός)일지

18) D. M. Smith,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Joh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22.

19) J. Kuegler, *Der andere Koenig,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auf die Christologie des Johannesevangeliums*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GmbH, 1999), 44.

라도 하나님과 함께 신적 본질에 참여하여 창조주 하나님과의 일치에 이르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웨첸은 요한복음 1:1에서 개별성과 동일성의 갈등을 읽어내고 지금 요한 공동체가 개별성에서 동일성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⁰⁾ 이것은 단계적인 발전이라는 해석이다. 이 단계적인 해석에서 있는 또 다른 학자는 타이센(G. Theissen)이다. 타이센은 요한복음 서막에 단계 해석학이 들어 있다고 주장한다.²¹⁾

그러나 요한복음 서막은 발전이라는 수직적 차원을 담고 있는 문서라기보다는 수평적 차원에서 저 기독교인과 고 기독교인의 갈등과 고 기독교 중 선재 방식을 놓고 갈등하는 공동체에 답변하는 문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²²⁾ 타이센이 발전된 단계로 보는 요한복음 1:1에서 이미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파악하였다.²³⁾ 타이센과 웨첸은 이러한 세부적인 갈등의 차원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3. 로고스의 선재 방식의 갈등 조율

요한은 로고스와 하나님의 개별성과 동일성을 동시에 서술하면서,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정관사를 빼는 선택을 하였다. 이것은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로고스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구별되는 부분이 있음을 암시한다. 요한복음서 서막의 로고스는 하나님이면서

20) H. C. Waetjen, "logos hen ton theon, and the Objectification of Truth in the Prologue of the Fourth Gospel," *CBQ* 63 (2001), 268-269.

21) 게르트 타이센, 『기독교의 탄생: 예수운동에서 종교로』, 박찬웅, 민경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342-343 참조.

22)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서막은 요한 공동체의 말기에 기록된 것으로 논자는 판단한다.

23) 타이센은 요한복음 1:1을 선재하신 로고스로 정리하고 1:1의 단계가 요한 공동체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선재하신 로고스의 선재 방식에는 갈등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타이센은 이것을 감지하지는 못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같지는 않은 존재로 부각한다. 몰로니는 이에 대해 “저자는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정보를 독자에게 주기 위해 이 센텐스를 주의 깊게 구성하고 있다.”고 했다.²⁴⁾ 몰로니는 요한 기자의 정교한 문장 처리를 파악하였으나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는지 더는 논구하지 않는다. 왜 요한은 자신의 독자들에게 로고스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정보를 주려고 했는가?

이에 대해 라임(G. Reim)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인 예수”라는 논문에서 “몇몇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기꺼이 인정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으로는 인정할 수 없었다. 아마도 요한복음 1:51은 유대 그리스도인의 논쟁에 속한 내용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한다: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요 1:49)는 천사들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로고스인 예수는 태초에 있었으나, 천사들은 둘째 날 창조되었다.”²⁵⁾라고 주장하였다. 라임은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동일성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 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동일성 주장을 한 경우는 도마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나의”라는 고백적인 소유격이 포함된 동일성 인정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차원의 고백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신앙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에 이른 경우를 우리는 요한복음 내에서 발견할 수 없다.

블랙(M. Black)은 로고스가 하나님과 나눌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아닌 로고스의 표현 방식을 찾아냈다.²⁶⁾ 그러나 그는 왜 그런 표현 방식이 요한 공동체에서 필요했는지는 더는 묻지 않는다. 서막에 등장하는 로고스와 하나님의 동일성 서술을 그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

24) F. J. Moloney, *Belief in the Word*, 28.

25) G. Reim, “Jesus as God in the Fourth Gospel: The Old Testament Background,” *NTS* 30 (1984), 160.

26) M. Black, *The Gospel of John*.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77 참조.

다. 요한은 이들을 위해 정관사를 뺀 ‘테오스’(Θεος)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준 다른 그룹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헬라인들이다.²⁷⁾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서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 있었다. 이들에게는 로고스가 하나님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선택이었다. 이는 요한이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테이오스’(Θειος)를 쓰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요한은 정관사를 뺀 ‘테오스’(Θεος)를 요한 공동체 내부에서 각기의 신앙적 수준에 따라 하나님으로도, 하나님이 아직 아닌 존재로도 이해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였다.

요한복음 1:1에 등장하는 로고스와 하나님의 개별성과 동일성의 갈등은 2절에 가면 개별성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요 1:2)는 언급은 로고스와 하나님의 개별성에 해당하는 본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로고스가 창조 사역을 한다. “만물이 그로 인해 지어졌다.”(요 1:3a). 이러한 언급은 요한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갖는 로고스가 세상을 창조한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다. 물론 만물이 그로 인하여 지어졌다고 할 때 만물은 단지 피조된 세계를 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로고스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상은 그 만든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대한 긍정이고, 이것은 세상 곧 유대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일 수 있다.

로고스를 하나님과 개별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요한 공동체 내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로고스가 창조 사역에 동참하였다고 해서 개별성으로부터 동일성으로 접근(발전은 아닌)하게 하려는 목적을 이 보도는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 또 다른 근거는 요한복음 10:30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언급 바로 뒤에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자, 예수는 요한복음 10:37, 38에서 “만일 내가 내

27) 요한복음 12:20-23. 명절에 올라온 헬라인 몇이 예수를 찾자, 예수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요 12:23)고 말한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언급하는데 있다. 이러한 본문은 요한의 예수 본인이 아버지와 자신의 동일성을 주장할 때 기능적 동일성으로 파악하였음을 드러낸다.

한편 로고스의 창조 사역은 로고스와 하나님의 동일성을 기능적인 동일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에 있는 로고스가 창조하였다는 보도는 창조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격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이러한 식의 보도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5:17)는 일(사역)에서의 일치 가능성으로 논리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 일을 할 때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다.

로더(W. R. G. Loader)는 기능적인 동일성은 요한복음 서막과 요한복음 전반에서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서막의 로고스 주제, 상호 거주,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아들도 일한다고 하는 사실, 아들은 들은 것만 전한다는 사실, 본 것만 말한다는 것 등이 증거이다.²⁸⁾

로더는 자신의 주장의 효용성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가 주장한 기능적인 동일성은 개별성을 주장하는 그룹과 존재론적 동일성을 주장하는 그룹 사이에 좋은 화해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로고스와 하나님의 개별성을 주장하는 그룹들에게 기능적인 동일성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을 때 개별적일 수 있으므로 이 논리는 매력적이었을 것이고, 존재론적 동일성을 주장하는 그룹들에게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동안 아버지와 동일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1:1의 내적 갈등은 기능적인 동일성이라는 로더의 개념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성을 가진 갈등이었을 것이다. 기능적으로 개별적인 로고스는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동일성에 이를 수 있다.

28) W. R. G. Loader, “The Central Structure of Johannine Christology,” *NTS* 30 (1984), 202 참조.

로고스와 하나님의 선재 방식에서 개별성을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능을 할 때 아들은 아버지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유대교 회당 축출을 경험한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을 로고스가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자신들을 축출한 사람들도 로고스의 사역으로 세상에 피조된 인간됨을 인정해야 했다. 요한은 요한 공동체의 회당 축출 사건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격심한 반감을 로고스의 창조 사역으로 그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로고스와 하나님의 존재론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지금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로고스는 의미 없으며 진정한 동일성은 아버지처럼 일하는 아들, 혹은 하나님으로 창조하는 로고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로고스의 성육의 역할 갈등

로고스의 성육에도 갈등이 존재한다. 로고스가 육신이 된 자와 어두움에 비추인 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로고스는 육신이 되어 함께 하지만, 빛은 어두움이 되지 않고 단지 어두움을 극복하기 때문이다. 빛과 로고스는 예수가 세상을 관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요한의 예수가 세상을 관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빛과 로고스의 갈등에 대한 접근 중 첫 번째는 갈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다.

프라이어(J. W. Pryor)는 “서막의 그리스도 인격에 대한 중요한 단어는 로고스이다. 그러나 ‘빛’이라는 단어도 첫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은 ‘빛’은 ‘모든 인류’에게 비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위한 빛이다(4:9).”라고 주장한다.²⁹⁾ 그러나 빛이

29) J. W. Pryor, “Of the Virgin Birth or the Birth of Christmas?: The Text of John 13 Once More,” *NovT* 27 (1985), 300.

모든 인류를 포함하여 비추는 빛이어도 그 빛을 모든 인류 중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거부했으며, 빛은 어두움에 비칠 때, 속성을 바꾸지 않는다. 단지 빛인 채로 어두움을 극복한다. 그러나 로고스는 육신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이미 인간의 속성을 취한다.³⁰⁾ 이러한 차이를 프라이어는 감지하지 못했다.

케제만(E. Kaesemann)에게 요한복음 1:5a와 1:14a는 갈등이 아니다. 14절의 육신이 된 로고스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 그에게 코스모스는 빛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그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³¹⁾ 그러나 지금 빛과 로고스를 받아들이는가 거부하는가의 문제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빛인 예수와 로고스인 예수가 취하는 코스모스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에 논의가 집중하고 있다. 물론 코스모스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과는 달리, 이미 코스모스에 온 예수가 취하는 입장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 논의는 생각하고 있다.

빛과 로고스의 역할 갈등을 이해하려는 두 번째 주장은 두 본문 중 하나를 다른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방향이다.

비비아노(B. T. Viviano, O. P.)는 요한복음 1:5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주장한다. 그는 “1:5는 (다른 많은 사건들 중에서) 부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했다.”고 주장한다.³²⁾ 비비아노의 전제는 어두움을 이긴 빛이라는 것에 집중된다. 그에게 승리는 부활에 이르러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16:33에 따르면 부활 이전 이미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는 세상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4과 입장 차이를 보이는 1:5의 언급을 부활 사건이라는 언급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도 비비아노는 빛과 로고스 사이

30) 요한복음 3: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를 보면 육신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31) 에른스트, 케제만, 『예수의 증언』, 박정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72.

32) B. T. Viviano, O. P., “The Structure of the Prologue of John (1:1-18): A Note,” *RB* 105 (1998), 184.

의 갈등을 감지한 학자이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빛과 로고스 중 하나를 예수의 세상에 오신 사건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선택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선택, 빛이 어두움에 비친 사건은 예수가 세상에 오신 사건이 아니라, 부활 사건이라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빛과 로고스의 역할 갈등을 설명하는 세 번째 주장은 둘 중 하나를 과거의 사건이라고 규정짓는 것이다. 슈넬레(U. Schnelle)는 요한복음 1:5과 1:14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5절이 14절과 같이 성육신에 해당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만약 5a절이 선제한 로고스의 성육신이 이미 언급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본질적인 부분인 이 언급은 매우 부정확하게 그리스도 전승의 한 부분을 형성한 것이었고, 심각한 오해에 빠진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³³⁾ 그는 요한복음 1:5에 나타나는 빛이 비추는 것을 과거에 일어난 육신이 되지 않은 로고스의 열매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빛이 비친다(파이네이)(Φαίνει)라고 할 때, 그 시제가 현재이므로 유지될 수 없다. 만약 요한복음 1:5a 절의 언급이 과거에 성공하지 못한 로고스의 세상에 온 사건이라면, “비치다.”(Φαίνει)라는 동사는 과거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빛이 비추인 사건이 로고스의 열매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그의 주장은 예수 사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상은 하나님으로까지 예수의 위치를 격상시키고 있는 요한복음 전반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그러므로 빛이 비추인 사건과 로고스가 육신이 된 사건은 모두 예수가 세상에 온 사건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요한복음 1:5과 14절이 모두 예수가 세상에 온 사건이라면, 이 본문들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1:5절의 어두움에

33) U. Schnelle, *Antidocetic Christology in the Gospel of John, An Investigation of the Fourth Gospel in the Johannine School*, L. M. Moloney, trans. (Minneapolis: Fortress, 2001), 217.

비친 빛과 14절의 육신이 된 로고스는 갈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의미하는 빛과 로고스는 그 역할 차이를 드러낸다. 이것은 요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구성한 흔적들이다.

요한복음 서막은 그동안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서 축출을 경험한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 공동체와 갈등을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쫓아낸 유대교 회당 공동체보다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되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³⁴⁾ 그러나 요한복음 서막은 요한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내적 갈등을 조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³⁵⁾ 이것은 서막 자체에서 상반되는 주장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서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³⁶⁾ 요한복음 서막은 요한 공동체의 내부 갈등을 반영

34) 서막을 외적 갈등으로 파악한 학자들은 B. J. Malina, R. L. Rohrbaugh, R. Kysar, G. Reim, S. S. Smalley 등 매우 많다. B. J. Malina and R. L. Rohrbaugh, *Social-Science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Minneapolis: Fortress, 1998); R. Kysar, "Christology and Controversy, The Contributions of the Prologue of the Gospel of John to New Testament Christology and their Historical Setting," *CTM* 5 (1978), 359; G. Reim, "Jesus as God in the Fourth Gospel: The Old Testament Background," *NTS* 30 (1984), 158-160; S. S. Smalley, *John-Evangelist & Interpreter* (Exeter: Paternoster, 1978).

35) M. M. Thompson, *The Incarnate Word Perspective on Jesus in the Fourth Gospel*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88). 그레도 톰슨은 요한복음 서막을 내적 갈등의 산물이라고 이해한다. 그는 내적 갈등의 범주를 다양한 구성원들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것이 그의 한계이다.

36) 서막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1:1)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개별적인 로고스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의 동일한 존재일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갈등의 조짐을 요한은 '테오스'(Θεος)에서 정관사를 빼는 방법으로 조율하고 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친다는 언급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언급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요한은 '영접'(1:12) 주제를 통해 조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볼도록 하자. 이런 식의 조율하는 논법은 외적 갈등보다 내적 갈등을 조율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

한 산물을 정확하게 읽어낸 서중석은 “요한 공동체는 두 가지 기독교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공개적으로 저 기독교론을 선전하려는 최초의 전략이다. 또 하나는 사회적 정황에 따라, 은밀하게 또는 공식적으로 고 기독교론을 유포하려는 주요한 전략이다. 예컨대 요한복음 1:35-42과 9:22은 저 기독교론을 반영하나, 서막(1:1-18)과 고별 연설(13:31-17:26)의 핵심은 고 기독교론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³⁷⁾ 여기서 ‘은밀하게’ 라고 언급한 고 기독교론의 유포 전략이 드러난 부분이 서막이다. 아직 서막에서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존재인지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은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요한 공동체의 내부 상황을 그려보자. 지금 요한 공동체는 이미 성장해 여러 구성원들을 받아 들였다. 내부적으로 구성원 간의 결속을 다져야 할 상황이다. 그들의 상이한 주장을 요한은 받아들여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요한 공동체의 내부 결속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등장한 요한의 해결 방법이 서막을 구상하는 것이었다. 왜 이러한 주장이 필요했겠는가? 요한 공동체 내부에는 유대교 회당 공동체의 추방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 공동체 내부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인들이 요한 공동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주는 내용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는 요한복음 4:39를 들 수 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까지 고백한다(4:42).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요한 공동체에 사마리아인들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구나 요한복음 8:48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예수는 사마리아인으로까지 불린다. 이러한 서술은 사마리아인들의 요한 공동체 유입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요한 공동체 내부에 유입된 사마리아 인들에게 유대교 회당 공동체는 원래 상관없는 실체이다(요 4:39-42).³⁸⁾ 이미 그들은 회당 공동체의

37) 서중석, 『복음서의 예수와 공동체의 형태』 (서울: 이레서원, 2007), 182.

38) 이 부분에 대해 몰로니는 사마리아인들의 유입은 유대주의와 성전을 초월한 예수

축출이라고 하는 상황 이전에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은 그리스 산에서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요 4:20). 이러한 사마리아 인들에게 유대교 회당 공동체 당국의 요한 공동체 구성원 축출이라는 상황이 그토록 절박하지 않았다. 이들이 유대교 회당이라는 구체적인 실체를 대표하는 코스모스에 대해 부정적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³⁹⁾

또한 예수의 첫 표적을 행한 곳이 갈릴리이고(2:1-11), 곧바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는 사건이 등장한다. 이는 요한의 예수가 반 예루살렘적임을 부각한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다음 장면이 예루살렘으로 바뀌면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5:18)는 말씀이 등장한다. 갈릴리와 유대의 구별은 받아들인 자와 거부한 자의 표현이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 이러라.”(7:1). 이러한 분석 아래 이미 요한 공동체 안에는 갈릴리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⁰⁾ 갈릴리인들에게 회당 축출 사건은 그리 절박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미 그들은 요한 공동체의 유대교 출신 사람들에게도 많은 차별을 받았지만 한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대교 회당 축출이라고 하는 요한 공동체 구성에서 중요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예수가 “내 아버지”(요 5:17)라고 부른 것을 유대 청중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나는 -이다”는 표현도 유대 청중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언이었으므로 요한 공동체에는 유대 출신이 아닌 헬라인들의 유입이 당연히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 J. Moloney, “‘The Reader’ in/of the Fourth Gospel?,” *ABR* 40 (1992), 25.

39)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개 취급하던 유대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므로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 대해서도 회당 축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부정적일 이유가 없다.

40) 요한복음의 이러한 갈릴리적 요소에 대해 믹스, 포트나, 마트수나가 같은 학자들이 이미 연구한 적이 있다. W. A. Meeks, “Galilee and Judea in the Fourth Gospel,” *JBL* 85 (1966), 159-169; R. T. Fortna, “Theological Use of Locale in the Fourth Gospel,” *ATRSup* 3 (1974), 58-95; K. Matsunaga, “The Galileans in the Fourth Gospel,” *AJBI* 2 (1976), 135-158.

문체에 그들은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짙다. 그 문제는 유대교 회당 축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수한 경험일 뿐이다.

이방인 전향자들도 요한 공동체에 유입된다. 요한복음 12:20-21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온 뒤, 곧바로 요한의 예수는 요한복음 12:23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언급을 통해 자신의 사역이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언급한다. 계속되는 요한복음 12:37-40에서는 유대인들이 선교 가능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언급이 등장하면서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보여준다.⁴¹⁾ 이들 외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 공동체에 유입된 흔적이 요한복음 1:35 이하 구절에서 볼 수 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유대교 회당 공동체로부터 축출을 경험하지 않고 요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다. 그들에게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서 축출당한 부정적인 경험은 그리 절실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이방인 전향자들에게 축출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코스모스 이해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일 가능성이 짙다.

그러나 요한 공동체에는 유대교 회당 축출이라는 아픈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고통에 요한 공동체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갈릴리 인들은 요한 공동체로 유입될 당시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서 축출당한 아픈 경험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서 축출당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으며 공동체 내부적으로 합의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요한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코스모스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유대교 회당 축출을 경험하지 않은 그룹들)은 예수가 코스모스로 들어와 코스모스와 함께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요한은 로고스와 빛으로 대표되는 예수의 코스모스에 대한 입장에

41) 서증석, 『복음서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237-262.

서도 코스모스 긍정과 그것의 부정이라는 차이를 부각시킨다. 먼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온 사건은 코스모스를 긍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들은 유대교 회당 축출을 경험하지 않은 채, 요한 공동체 구성원이 된 사람들이다. 그 다음,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 방식으로 코스모스에 온 예수로 고백하는 구성원들은 코스모스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코스모스를 부정하는 예수의 역할은 어두움을 이긴 빛으로, 코스모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예수의 역할을 육신이 된 로고스로 이해한다.

5. 로고스의 성육의 역할 갈등 조율

이제 요한은 빛과 로고스로 각이하게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할 과제를 맡게 되었다. 서막의 각이한 예수 이해는 요한 공동체 내부에 극단적인 입장들을 잠재우기 위한 요한의 시도이다. 로고스가 코스모스가 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코스모스를 긍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예수는 빛으로도 어두운 세상에 왔으며, 이것은 빛의 속성을 버리지 않으며 어두움과 관계하는 예수를 부각시켜 일방적으로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 대해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에 대해 일정 정도의 교정을 하고 있다. 공동체 내부에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이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려는 입장을 요한은 가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빛으로 어두움에 비친 예수는 세상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요한은 빛인 예수가 말씀이기도 하며, 말씀인 예수는 육신이 됨으로 코스모스에 대해 긍정적이기도 하다는 면모를 보여서 코스모스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일정 정도 교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 중 드러난 것이 각이한 예수 이해에 대한 언급이다(1:5, 1:14).

또한 요한은 각이한 예수 이해를 드러내는 두 구절에서도, 극단적인

부정이나 긍정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일정 정도 완화하는 논법을 사용한다. “빛은 어두움에 비친다. 그러나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였다.” 코스모스로 상징되는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축출을 경험한 자들에게 요한은 빛과 어두움이 섞일 수 없음을 전제로 그들의 회당 공동체 이탈을 정당화해주면서, 그들이 회당 공동체 구성원들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이 회당에서 축출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당 공동체 구성원들이 빛인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설명한다.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 중 회당 축출을 경험한 그룹은 자신들이 회당 공동체를 거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정하게 해 준다. 축출 사건 자체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회당 축출을 경험한 그룹의 사람들이 흐를 수 있는 일방적인 부정적인 견해에서 일방적인 부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만약 어두움이 빛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도 빛에 속할 수 있음을 전제한 설명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예수의 코스모스를 긍정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코스모스에 대해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입장으로 흐를 수 있는 경향에 대해 요한은 ‘그러나 영접하여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조건을 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코스모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므로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된다. 요한에게 이 두 모순적인 언급은 영접(빛에 대한 이해)이라고 하는 공통의 조건이 등장하고, 공동체 내부에서 납득됨으로 그 모순의 강도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⁴²⁾ 이것이 요한의 내부 갈등을 조율하는 전략이다.

42) 기브린은 서막을 교차적으로 이해하여 10-12절이 중신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의 중심 주제를 거부와 영접이라고 밝힌다. 그러므로 육신이 된 로고스로부터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 그리고 진리를 보면서, 그를 영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다. C. H. Giblin, “Two Complementary Literary Structure in John 1:1-18,” *JBL* 104 (1985), 87-103.

이 둘 사이의 갈등을 요한은 빛은 어두움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코스모스에 대한 일방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전략적으로 완화하는 논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요 9:25).⁴³⁾ 이것은 빛인 예수가 빛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빛이 어두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머물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언급은 코스모스에 대해 영원히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코스모스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일정 정도 교정 기능을 한다.

요한복음 서막에서 빛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다(1:6-8).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인 세례 요한의 등장은 어두운 세상을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요한 공동체 구성원 중 일방적으로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요한 공동체 구성원 중 자신들을 추방했지만, 그 어두움을 향하여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살아 있는 모델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 요한은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설명이 요한 공동체에 있는 내부 갈등의 요소를 효과적으로 해소했을 것이다.

내부 갈등이 해소된 요한 공동체는 이제 그의 영광을 함께 본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는 충만하다(1:14).

6. 결론

요한복음 서막 중 1:1은 그 자체 내에 갈등적 요소를 함유한다. 이것

43) 요한복음 12: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언급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음을 천명한다.

은 로고스의 선재 방식이 하나님과 개별성을 유지한 채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루어졌느냐의 갈등이다. 로고스와 하나님의 개별성을 자신들의 입장으로 삼은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은 로고스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하기에는 유일신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로고스와 하나님의 동일성을 선재 방식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다.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 있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 서막의 로고스를 개별성으로 이해하는 방향과 동일성으로 연구하는 방향, 둘 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둘 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그런 각이한 주장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것은 요한 공동체의 내적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갈등을 요한은 서막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었는지 찾아내야 할 것이다. 먼저 요한은 하나님으로도 이해되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도 이해되도록 로고스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정관사를 빼는 선택을 한다. 이러한 선택은 요한 공동체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동일성을 주장하는 헬라인들과 개별성을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이었다.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선재하던 로고스는 세상을 창조한다. 이러한 보도로 요한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회당 축출을 경험한 사람들의 유대교 회당 적대감을 완화한다. 그들도 로고스가 만든 피조물됨을 인정하게 한다. 이러한 보도는 또한 헬라인들에게 로고스와 하나님의 동일성이 존재론적 동일성이 아니라, 기능적인 동일성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로고스의 창조 사역은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요한복음 서막에 등장하는 빛인 예수와 로고스인 예수 사이에 일정한 갈등이 있다. 빛은 어두움에 비치는 역할을 하고, 로고스는 세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육신이 된다. 빛은 어두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로고스는 육신이 된다. 로고스로 예수를 이해하는 입장은 예수가 육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코스모스에 대해 긍정적이다. 그러나 빛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입장은 코스모스의 속성인 어두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바, 코스모스에 대해 부정적이다.

요한복음 서막 중 1:5a와 1:14a는 갈등 요소를 함유한다. 이것을 갈등으로 보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노출된다. 시기적으로 다른 언급이라는 주장이 그 하나이다. 이것은 예수의 일차 코스모스와의 관계 시도에서 실패하였음을 전제해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한편 요한복음 1:5a의 언급을 예수가 코스모스에 오신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부활)이라고 보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은 이 모순되는 언급들 중 하나를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성경 본문을 필요에 따라 생략하는 극단적인 선택이다. 또 다른 해석의 경향은 두 본문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는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조건에서 같기에 두 언급은 갈등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각이한 이해이다. 물론 이 같은 조건의 제시가 공동체를 분열로 몰고 가지 않으려는 요한의 내부 갈등 해소 방법이기도 하다.

도리어 이 두 본문은 요한 공동체의 예수 이해에 대한 각이함으로 발생하는 내부 갈등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다른 해석들보다 자연스럽다. 다양한 구성원들로 공동체를 꾸린 요한 공동체는 내부 갈등의 요소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회당 축출을 경험한 그룹들과 경험하지 못한 그룹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서막을 기록하였다. 코스모스를 상징되는 유대교 회당 공동체로부터 축출을 경험하지 않아서 요한복음의 코스모스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요한은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유대교 회당에서 축출을 경험하여 부정적으로 코스모스를 이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두움으로 대표되는 유대교 회당 공동체 구성원들도 예수를 영접하면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요한은 서막에서 납득시키고 있다. 요한은 극단적으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이어서 내부의 그룹들이 갈등하는 것에 대해 조율하고 싶어 했다. 이러한 소망이 요한복음 서막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로고스의 선재 방식, 로고스와 하나님의 동일성, 로고스와 하나님의 개별성, 로고스, 코스모스, 회당 축출, 유대교 회당 공동체, 요한복음 서막, 로고스의 창조 사역, 영접

<Key Words>

Pre-Existence method of logos, Unity of Logos and God, Disunity of Logos and God, Logos, Cosmos, Synagogue Expulsion, Jewish Synagogue Community, Prologue of John's Gospel, Creative-Work of Logos, Reception.

* 접수일 2010년 2월 17일, 수정일 2010년 3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0년 4월 8일

참고문헌

- 서중석, 『복음서의 예수와 공동체의 형태』, 서울: 이레서원, 2007, 182.
- 서중석, 『복음서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케제만, 에른스트, 『예수의 증언』, 박정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 타이센, 게르트, 『기독교의 탄생: 예수 운동에서 종교로』, 박찬웅, 민경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Barrett, C. K.,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An Introduction with Commentary and Notes on the Greek Text*, London: SPCK, 1978.
- Davies, M., *Rhetoric and Reference in the Fourth Gospel*, JSNTSS 69, Sheffield: JSOT Press, 1992.
- Fortna, R. T., "Theological Use of Locale in the Fourth Gospel," *ATRSup* 3 (1974), 58-95.
- Giblin, C. H., "Two Complementary Literary Structure in John 1:1-18," *JBL* 104 (1985), 87-103.
- Haenchen, E., *John I. A Commentary on the Gospel Chapters 1-6*, R. W. Funk, tr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Keil, G., *Das Johannesevangelium. Ein philosophischer und theologischer Kommentar*,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7.
- Kuegler, J., *Der andere Koenig,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auf die Christologie des Johannesevangeliums*,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GmbH, 1999.
- Kysar, R., "Christology and Controversy, The Contributions of the Prologue of the Gospel of John to New Testament Christology and their Historical Setting," *CTM* 5 (1978), 359.
- Kysar, R., *John the maverick gospel*, Atlanta: John Knox Press, 1976.
- Loader, W. R. G., "The Central Structure of Johannine Christology," *NTS* 30 (1984), 202.
- Martyn, J. L., *History and Theology in the Fourth Gospel*, New York: Paulist Press, 1979.
- Matsunaga, K., "The Galileans in the Fourth Gospel," *AJBI* 2 (1976), 135-158.

- Malina, B. J. and R. L. Rohrbauch, *Social-Science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Mineapolis: Fortress, 1998.
- Meeks, W. A., "Galilee and Judea in the Fourth Gospel," *JBL* 85 (1966), 159-169.
- Miller, M. D., "'In the Biginning?': A Christological Transparency," *NTS* 45 (1999), 592.
- Miller, M. D., "The Logos was God," *Evangelical Quaterly* 49 (1977), 68.
- Moloney, F. J., "'The Reader' in/of the Fourth Gospel?," *ABR* 40 (1992), 25.
- Moloney, F. J., *Belief in the Word, Reading the Fourth Gospel: John 1-4*,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Polhill, J. B., "John 1-4: The Revelation of True Life," *RE* 85 (1988), 446.
- Pryor, J. W., "Of the Virgin Birth or the Birth of Christmas?: The Text of John 13 Once More," *NovT* 27 (1985), 300.
- Reim, G., "Jesus as God in the Fourth Gospel: The Old Testament Background," *NTS* 30 (1984), 158-160.
- Schenke, L., *Johanneskommentar*, Duesseldorf: Patmos, 1998.
- Schnelle, U., *Antidocetic Christology in the Gospel of John, An Investigation of the Fourth Gospel in the Johannine School*, L. M. Moloney, trans., Minneapolis : Fortress, 2001.
- Smalley, S. S., *John-Evangelist & Interpreter*, Exeter: Paternoster, 1978.
- Smith, D. M.,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Joh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Thompson, M. M., *The Incarnate Word Perspective on Jesus in the Fourth Gospel*,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88.
- Viviano, O. P., B. T., "The Structure of the Prologue of John (1:1-18): A Note," *RB* 105 (1998), 184.
- Waetjen, H. C., "logos hen ton theon, and the Objectification of Truth in the Prologue of the Fourth Gospel," *CBQ* 63 (2001), 268-269.
- Witherington, III, B., *John's Wisdom, A Commentary on the Fourth Gosp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초록>

요한복음 서막에 나타난 로고스의 선재와 성육

서형석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 교수)

이 소론의 목적은 요한복음 서막에 나타난 로고스와 코스모스 사이의 관계를 갈등 사회학의 전망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요한복음 서막에서 로고스와 코스모스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요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선재하는 로고스를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로고스의 선재 방식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유대 크리스천들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선재 방식을 주장하였다. 헬라 크리스천들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라는 선재 방식을 주장하였다. 헬라 크리스천들은 그레코-로만 세계와 영지주의적 사상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요한은 이러한 갈등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로고스가 창조 사역을 하는 것으로 구성하여 조절한다. 하나님과 개별적인 방식으로 선재하는 로고스는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 이것은 기능적으로 하나님과 로고스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갈등은 요한복음의 서막에 나타난 코스모스 개념에서도 나타난다. 요한복음에서 코스모스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유대 크리스천들은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축출당했다. 그러나 유대교 회당 축출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들(유대 크리스천과 헬라 크리스천 포함)은 유대교 회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이유가 없었다. 도리어 그들은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영지주의적 사상 세계에서 온 헬라 크리스천들은 코스모스에 대해 그것은 물질이기에 부정적이었다. 요한은 이들과 유대교 회당 축출을 경험하지 않은 공동체 내부 구성원

들에게 세상은 물질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요한은 서막에서 여러 출신 배경을 가진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이 극단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요한 공동체가 세상을 거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축출을 경험한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도 로고스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접이라는 주제는 코스모스 주제에 드러난 요한 공동체의 내부 갈등을 조율하는 개념이다.

<Abstract>

Logos and Cosmos in the Prologue of John's Gospel

Dr. Hyung-Suk Seo
(Yonsei Univ.)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relations between logos and cosmos in the Prologue of John's Gospel from the perspective of Conflict Sociology. These Themes have reflected inner conflict of John's community. All people of John's community believes in Logos of Pre-Existence. But they have another Thoughts of Pre-Existence methods of Logos. Jewish Christians have claimed Disunity of logos with God. Hellenistic Christians have claimed Unity of logos with God. John solves this conflict as describes creative Works of logos with God. Creative work makes functionally Unity of logos and God.

These conflicts generate also in theme of cosmos in the Prologue of John's Gospel. Cosmos in the John's Gospel is

represented “The Jews”. Jewish Christians evaluated negative about Synagogue Community. Because they expelled Jewish Christians from their Community. But There are samaritans, disciples of baptist john, galileans, hellenist christians in the John’s Community. These can not experience expulsion of Synagogue. So, These evaluated positive about Synagogue Community.

John explains Reception theme for solving conflicts of cosmos theme. John teaches reason of negative opinion about Synagogue Community. John maintains negative evaluation about cosmos, because cosmos rejects Jesus. John prevents inner conflict of John’s community from Radicalism. If members of John’s community reject Jesus, they also are negative. But Even if members of Synagogue Community receive Jesus, they are children of God. So Reception theme prevent inner conflict of John’s community from Radicalism.

